

2013.06. .

- 목단강시 초청방문 -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



광명시 의회

목 차

I. 여 행 개 요

1. 연수 기간	1
2. 연수 국가	1
3. 연수 인원	1
4. 연수 내용	1
5. 목단강시와 그동안 교류내역	2

II.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방문자 명단

III. 방문일정

IV. 목단강시 현황

V. 방문성과 및 방문지

1. 목단강시 모습	6
2. 청소년국제교류 협약	7
3. 강남개발구	8
4. 조선족 소학교	8
5. 경박호	9
6. 발해유적지 및 홍릉사	10
7. 백두산	11
8. 비룡폭포와 온천지대	11
9. 천지조망	12
10.호림원	13

VI. 인민대표대회 현황 및 참고자료

VII. 목단강시 방문 여행을 마치고(총괄)

공무 국외여행 결과보고

I 여행개요

1. 기 간 : 2013. 05. 23(목)~05. 28(화) 【5박 6일】

※ 광명시의회 출발 : 2013. 05. 23(목) 09:30

○ 인천공항 출발 : 2013. 05. 23(목) 12:50 CZ 6088

○ 인천공항 도착 : 2013. 05. 28(화) 19:00 CZ 6087

2. 여행국 :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3. 방문단 : 11명(의원 7명, 공무원 4명)

4. 주요 연수내용

○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와 우호교류 회담

○ 청소년국제교류 협약체결

○ 목단강시 학교 및 강남개발구 탐방,

○ 경박호 유원지 방문

○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적지 등 견학

○ 백두산 및 비룡폭포, 강변공원 등 견학

○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수집

5. 목단강시와의 그동안 교류내역

- **98. 10. 08** :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목단강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일행 방문)
- **99. 04. 01~04. 06** : 양국 자치단체 대표단 회담(김권천 의장 외 9명 목단강시 방문)
- **99. 11. 29~12. 02** : 목단강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부주임 이조서 외 5명 광명시 방문
 - **99. 12. 01** : 우호교류 협정 체결
- **2001. 08. 27~09. 02** : 문한욱 의장 외 7명 목단강시 방문
- **2002. 09. 10~09. 13** : 중국 목단강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주임 방숙민 외 2명 광명시 방문
- **2003. 09. 02~09. 07** : 최호진 의장 외 8명 목단강시 방문
- **2005. 04. 12~04. 15** : 목단강시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려요훈 외 6명 광명시 방문
- **2005. 10. 11~10. 17** : 문해석 의장 외 9명 목단강시 방문
- **2007. 06. 12~06. 14** : 목단강시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유서용 외 7명 광명시 방문
- **2007. 10. 09~10. 15** : 김선식 의장 외 11명 목단강시 방문
- **2009. 09. 17~09. 22** : 심중식 의장 외 13명 목단강시 방문
- **2011. 09. 27~10. 02** : 이준희 의장 외 12명 목단강시 방문
(이준희, 권태진, 문영희 의원은 09. 23. 요성시 경유 목단강시 합류)
- **2012. 08. 21~08. 24** :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량교 외 5인 광명시 방문

Ⅱ 목단강시 인대 방문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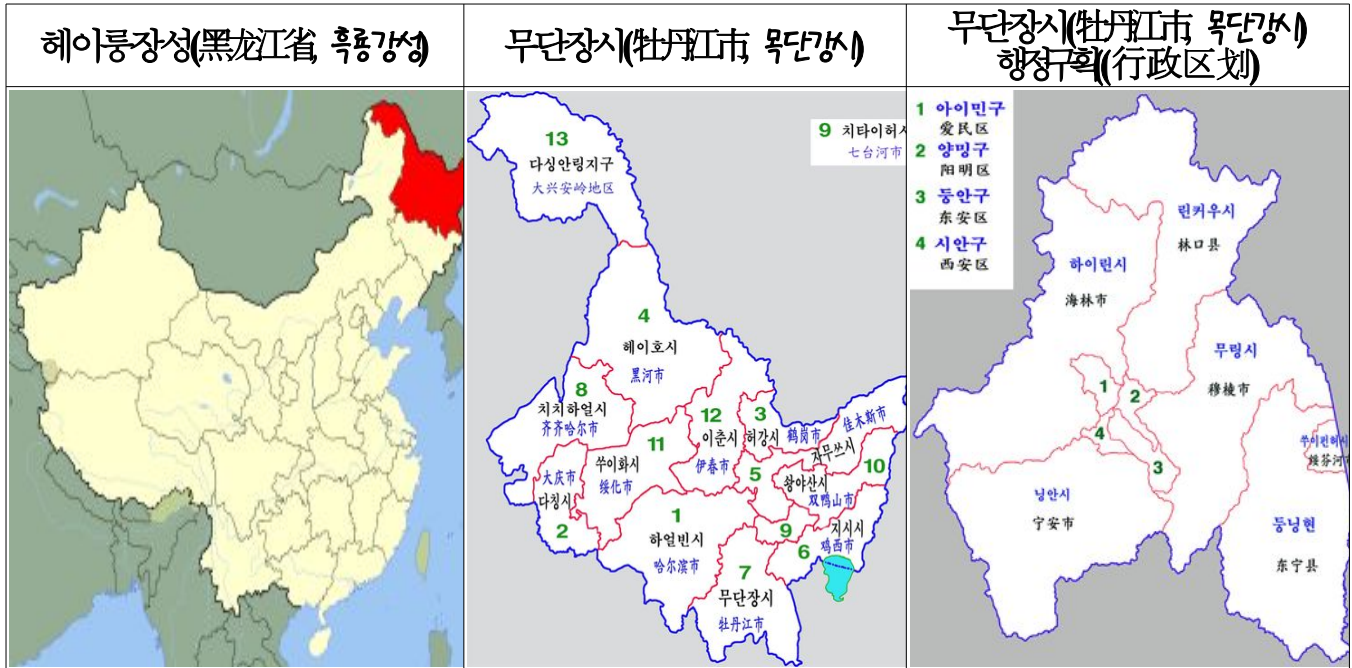
직 위	사 진	성 명			성별	연령
		한 글	영 문	한 문		
			계	11명		
의 장		정용연	Jung Yong Youn	鄭龍衍	남	53
부 의 장		권태진	Gweon Tae Jin	權泰振	남	52
의 원		이준희	Lee Jun Hee	李俊熙	남	53
의 원		이병주	Lee Byung Ju	李炳柱	남	54
의 원		강복금	Kang Bok Keum	姜福今	여	58
의 원		김익찬	Kim Ik Chan	金益贊	남	45
의 원		고순희	Ko Soon Hee	高順姬	여	41
사무국장		김태경	Kim Tae Kyung	金泰京	남	56
의정팀장		정성오	Chung Sung Oh	鄭盛午	남	55
주 무 관		원일재	Won il Jae	元日載	남	50
주 무 관		박철영	Park Chul Yoyng	朴哲永	남	39

Ⅲ 방 문 일 정

일 시	지 역	교 통	시 간	방 문 일 정	비 고
5. 23(목) (1일차)	광 명 인 천 목단강	CZ6088	09:00 12:50 14:20 15:30 17:00	○광명시의회 출발 ○인천공항 출발 ○목단강 공항 도착 ○호텔이동 및 체크인 및 휴식 ○환영만찬(희루다 호텔)	환영만찬
5. 24(금) (2일차)	목단강	버 스	07:30 08:30 10:10 11:00 14:00 17:00	○조식(희루다 호텔) ○쌍방회견, 청소년교류 협의서 체결, 기념품교환 등 ○시 정부 영도자와 회견, 기념품 교환 등 ○중식 및 휴식 ○강남개발구, 조선족학교, 팔녀투강비 등 견학 ○호텔투숙(희루다 호텔)	호텔식 석 식
5. 25(토) (3일차)	목단강	버 스	07:30 08:00 11:30 14:00 17:00 17:30 19:00	○조식(희루다 호텔) ○명성마을, 한국기업, 향수촌 등 견학 ○중 식 ○경박호 유원지 관람 ○경박호 유원지 호텔 체크인 ○환송 만찬(유원지 호텔) ○호텔투숙(희루다 호텔)	호텔식 강현식 환송만찬
5. 26(일) (4일차)	이도 백하	버 스	전일	○조식(희루다 호텔) ○상경용천부, 발해유적지, 궁터, 홍룡사 견학 ○이도백하로 이동(약 5시간 30분 소요) ○호텔투숙 및 휴식(크리스탈 호텔)	호텔식 현지식 샤브샤브
5. 27(월) (5일차)	백두산	버 스	전 일	○조식(크리스탈 호텔) ○백두산천지(중국쪽 북파등정), 비룡폭포 견학 ○온천지대 체험 ○목단강으로 이동(약 5시간 30분 소요) ○호텔투숙(하와이 호텔)	호텔식 중 식 현지식
5. 28(화) (6일차)	목단강 인 천 광 명	버 스 CZ6087	07:30 09:00 15:20 19:00 20:00	○조식(하와이 호텔) ○호림원 및 조선족거리 견학 ○목단강 출발 ○인천공항 도착 ○광명시의회 도착	호텔식 중 식 석식: 가짜

IV 목단강시 현황

1. 목단강시 위치 및 행정구역



2. 목단강시 현황

- 중국 흑룡강성 남부에 위치 해 있다.
- 3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37년 시로 승격되었다.
- 6개의 철도노선과 1백 66개의 도로노선이 연결된 교통 중심지로서 상업도 발달한 곳이다. 도시 자체에는 별로 관광할 것이 없지만 주변 외곽도시 중에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경박호나 발해 유적지, 동경성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단강을 들러야 할 만큼 교통의 요지이며 경제, 무역, 관광도시이다. 동쪽으로 러시아와 인접한 목단강시는 지역내에 211km의 국경선이 있으며 블라디보스톡까지 직선거리는 248km이다.
- 6개현과 4개구가 있고 지역 총면적은 40,583 평방킬로미터(광명시의 1,038배), 총 인구는 300만명(광명시의 86배) 정도이다. 이중 도시인구는 85만명(광명시의 25배)이고 지역내에 13만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 도시 남쪽에 목단 강이라고 부르는 강이 있어서 강 이름 그대로 도시 이름이 되었다.
- 목단강은 물자원이 풍부한 도시이다. 경박호 폭포는 만년전에 화산폭발에 의해 이루어진 호수입니다. 해발고도 351m, 길이 45km, 최대너비 86km, 면적 130km², 깊이 48m이다. 화산의 분출에서 형성된 호수로 호구의 낙차가 매우 크며 높이 20m, 너비 40m 에 이르는 폭포가 2개 있다.
- 목단강은 삼림에 둘러싸였다. 사람을 도취시키는 오화산의 가을풍경, 신기하고 미묘한 원시삼림 등 목단봉은 목단강에서 12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중국에서 도시와 가장 가까운 국가급 삼림공원이다.
- 목단강은 유구하며 젊은 도시이다. 젊다는 것은 다만 몇십 년의 건설역사, 유구한 것은 4000여년 전부터 이곳에는 민족의 선조인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 동년요새는 일본 침략군이 아시아에서 건설한 제일 큰 요새이며 2차 세계대전쟁의 제일 마지막 전쟁 장소이었다.
- 위호산 영화촬영지, 발해 풍정원, 발해협곡 등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끌고 있고, 목단강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남쪽에 흐르는 목단강 이라는 강 이름에서 유래한 것, 목단강은 만주어로 “구불구불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 “목단우라”에서 따온 것, 목단강역에서 쪽 뻗어 나온 태평로가 목단강에 의해 막히는 지점에 “빈강공원”이 강을 따라 나있어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이 되어준다. 빈강 공원의 한가운데에는 목단강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팔녀투강 기념비가 서 있다.

V 방문성과 및 방문지

1. 목단강시 모습

- 공무국외여행심사에서 후발도시며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이유로 자매 결연을 파기하고 선발도시와 교류하는 것을 제의받는 등 푸대접을 받은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첫 발을 디뎠지만 동북아의 교통 요충지로서 러시아 등과 교역을 위한 각종 고속도로며, 철로, 항공노선 등이 새로이 개설되는가 하면 우리시보다 큰 면적의 강남개발구 사업과 새로이 들어서는 고층아파트 등을 바라보면서 3-4년 후에는 우리 시를 능가하는 발전된 모습들을 가상으로 몸소 체험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익힘은 물론, 열린 사고방식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음.



목단강시 주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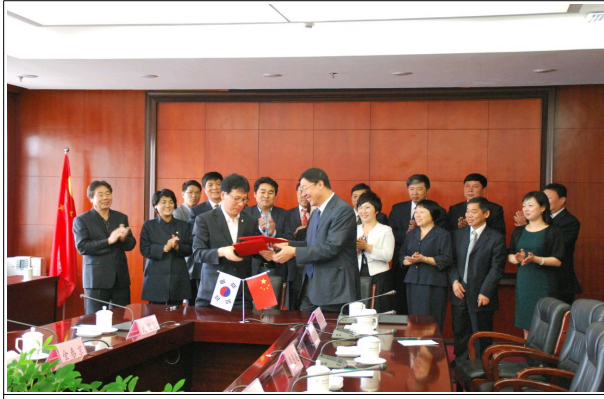
목단강시 인민대표회의 청사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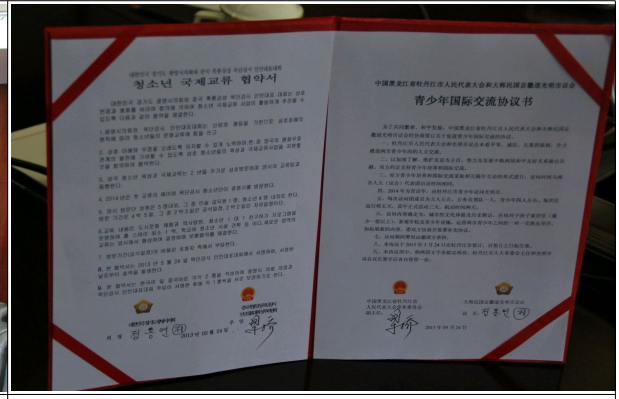
목단강시 인민대표회의와 접견

2. 청소년국제교류 협약

- 목단강시와 쌍방 회견을 시작으로 시정부 영도자들과의 회견 등 공식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이번방문에서 청소년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장소에서 장해화 목단강시 정부 부시장으로부터 금년 내에 기아자동차 같은 산업분야나, 의료사업, 공무원교류, 타국 청소년들과 연합 국제교류, 문화(연극, 서예, 사진 등), 스포츠분야는 물론 내년 15주년 기념사업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실무단 구성 및 상호방문을 제의받았으나 우리 시 특성(예산 및 내년도 선거 등)을 감안하여 연내 실무단 구성은 어렵고 기아자동차 견학추진 및 의료부문 긍정적 검토 등 이번, 청소년 교류 사업을 계기로 년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국제교류 협약서 교환



국제교류 협약서

3. 강남개발구

○ 한창 진행 중인 강남개발구에 처음으로 입주한 제지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바쁘게 움직이는 기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얼굴이 무척이나 밝아보였다. 공장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70%가 장애인이며 담배필터를 감싸는 종이를 제작하는 회사로 중국 내 흡연인구를 생각하면 갈수록 신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회사로서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제공함으로써 직장을 가정처럼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생산성 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강남개발구 현황 경청



강남개발구 입주 제지공장



강남개발구 입주 제지공장

4. 조선족 소학교

○ 1934년 개교하여 7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치원 180명, 소학교 500명이

재학 중이며, 재학생 중 80%가 결혼가정(한국으로 취업 등)의 학생들인 조선족 소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마침 봄철 운동회가 열리는 날로 만국기가 흔들리는 가운데 계주와 줄다리기 등 운동회가 한창이었으며, 교실에서는 4세미만과 소학교 취학 전 유아반들이 우리 방문단을 맞이하면서 각종 율동과 노래 등으로 환영을 해주고 환영식도 가져주었는데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에서 우리 조선족의 혈통과 언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인사말 도중 의장님을 울컥하게 한 민족의 애환을 보게 하기도 함.



조선족 소학교 방문환영



조선족 소학교 운동회



조선족 소학교 유아반 장기자랑

5. 경 박 호

- 약 1만년 전에 화산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목단강 남쪽에 넓혀있는 중국 최대의 뚝을 쌓아서 만들어진 호수로, 동서가 86km, 남북이 45km,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62m나 된다는 호수면은 이름처럼 거울과 같이 번쩍번쩍 물결이 빛나고 한때나마 환상적 기분에 잠기게 되며, 봄에는 꽃을, 여름에는 물을, 가을에는 낙엽을, 겨울에는 설경을 즐길 수 있어 4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내내 호수 아래로 떨어지는 경박폭포(鏡泊瀑布)가 장관인 경박호를 관람.



경박호 전경



녕안시 방문기념

6. 발해 유적지 및 흥륭사

- 백두산 산행을 위하여 이도백하로 이동하는 길목에서 대조영이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게 망한 고구려를 계승하여 건국한 나라로 이후 228년간 한반도 북부와 만주 및 연해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 위치해 존속하였던 발해유적지와 발해국을 멸한 거란이 발해국의 옛 영토에 동단국(東丹國)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상경용천부 자리에 수도를 정한 뒤 얼마 후 수도를 옮기면서 그 뒤로 폐허가 되어 지금은 성터와 왕궁터만 남아있는 유적으로 1,200여 년간 지하에 묻혀 있던 발해국의 문화가 밝혀진 상경용천부와 흥륭사를 둘러보면서 광활한 민족의 기상을 느낄 수 있었다.



발해 유적지



흥륭사

7. 백 두 산

- 백두산의 산정이 눈이나 화산폭발에 의해 덮인 백색의 부석으로 4계절 희게 보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압록강(길이 925.5km), 두만강(610km), 송화강(1,927km)의 발원지로서 중앙부에는 화산활동에 의해 생긴 칼데라호인 천지가 있으며, 그 주변에는 2,500m 이상의 봉우리 16개가 천지를 둘러싸고 있고 이 가운데 6개 봉우리는 북한에 속하며 (최고봉은 2,750m의 장군봉), 7개는 중국에 속 하고 (최고봉은 2,741m의 백암봉), 3개의 봉우리는 국경에 걸쳐있다.
-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동남쪽은 북한, 서북쪽은 중국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 쪽인 북파와 서파만을 오를 수 있다. 해발 1700m의 백두산 환승주차장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한 후, 승합차로 능선을 따라 올라 천문봉 아래 기상대 앞에서 하차 후 5분 정도만 걸어 오르면, 천문봉 정상 (해발 2670m) 에 도착해, 476m 아래 펼쳐진 천지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이곳은 안개일수가 연평균 267일에 달해, 천지의 절경을 보기란 행운에 가까운 관계로, 백번 올라가야 두번 정도 볼 수 있어 백두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오르는 날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세찬바람과 훑날리는 빗방울이 있었지만 뽕뽕 언 천지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백두산(장백산) 입구



백두산 입장권

8. 비룡(장백)폭포(長白瀑布)와 온천지대

- 천지 북쪽에 결구가 형성되어 있고, 천지의 물이 결구를 통해 1천여 미터의

긴 협곡까지 흘러 폭포를 형성했으며, 장백폭포는 높이가 60여m의 웅장한 폭포로 200m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겨울에도 얼지않아 일년 내내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데 지난여름에 홍수가 있었는지 군데군데 다리와 도로가 파괴되어 장백폭포까지 가는 연결노선이 중간에 차단되어 밑에까지는 가보질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화산의 뜨거운 열이 지하수를 데워서 지표면으로 자연온천수가 흘러나와 곳곳이 김이 몽골몽골 피어오르는 것을 볼수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온천수에서 삶아진 계란과 옥수수를 맛보기도 하였다.



비룡폭포와 온천지대 앞



비룡폭포와 온천지대 전경

9. 천지(天池)조망

- 백두산 풍경중 최고로 뽑히는 천지는 화산의 분화구에 생성된 것으로 해발 2,200m 높이에 위치해 있으며, 백두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데에서 "천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원형을 띠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10km², 호수 주위 길이가 13km, 평균수심이 204m 정도이다. 천지는 예부터 안개가 많고 1년 중 맑은 날이 거의 없다. 천지를 둘러싸고 백두산의 16개 봉우리가 솟아 있으며 천지의 물이 흘러 장백폭포와 온천을 형성한다.



백두산 천지 표지석 앞



공공언 백두산 천지 전경

10. 호림원

- 1988년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였을 정도로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온 동물, 호랑이. 하지만 우리나라와 만주 일대에서 서식해 온 시베리아 호랑이, 일명 백두산 호랑이는 차츰 그 수가 줄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멸종된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멸종 위기에 놓였던 백두산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1986년 인공 사육센터를 설립했다. 비록 각 지역의 동물원 으로부터 기증받은 백두산 호랑이 8마리가 전부였지만 차츰 교배와 사육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20여년이 흐른 지금은 830여 마리에 이른다. 초기에는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서 데려온 호랑이와 교배시켰고 2천년 대 부터는 DNA 조사로 근친상간을 피하는 과학적 노력까지 기울인 결과라고 한다. 하얼빈 시 외곽에 자리 잡은 동북 호림원을 찾았다.



호림원 입구



호림원 전경

VI 인민대표대회 권한 등 참고자료

①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개요

목단강시 제1기 인민대표대회는 1954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개최하였으며 1965년 12월까지 총 6기에 걸쳐 2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1966년부터 1979년까지는 중단되었다가 1980년 11월에 제8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를 거쳐 인민대표상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때부터 인민대표회의 상설기구로서 상무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인원이며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의 구성인원이다. 시 인민대표대회는 시 관할 구역인 각 현(시)·구인민대표대회에서 엄격히 법에 의하여 인민의 선거(2007. 1. 28)에 의해 탄생됐다.

현재의 인민대표대회는 인민대표가 시·현·향급 포함 1,000여명이며, 시급 인민대표는 350여명이고, 국가인대대표 4명, 흑룡강성 인대대표가 45명이다. 현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35명으로 시 인민대표회의 선거에서 선출하여 구성했으며 주임 1명, 부주임 6명, 비서장 1명을 두고 있다.

②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의 권한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가. 결 정 권

행정구역내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을 심사·비준하며 행정구역내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위생, 환경과 자원보호, 민정, 민족 등 사업의 중대한 사항들을 토론·결정한다.

나. 감 독 권

행정구역내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및 상무위원회 결의사항 준수와 집행을 보증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심사하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의를 변경, 철회할 수 있으며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선 거 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 시 인민정부 시장, 부시장,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하고 상1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를 선출하며 각 전문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과 위원을 선출한다.

③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

가. 결 정 권

행정구역내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위생, 환경과 자원보호, 민정, 민족 등 사업의 중대한 사항들을 토론·결정하며 인민정부의 건의에 따라 행정구역내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의 부분적 변경을 결정한다.

나. 감 독 권

행정구역내에서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의결사항 준수와 집행을 보증하며 인민정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하고 국가기관과 국가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리하며 하 1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의를 철회하고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임 면 권

인민정부 부시장의 개별적인 임면을 결정하며 시장,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사정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부직간부, 지도성원 중에서 대리인선을 결정하며 시장의 제의에 따라 인민정부의 비서장, 재판장, 국장, 위원회 주임의 임면을 결정하며 인민검찰원의 부검찰장, 심판위원회 위원, 심판원을 임면하며 하1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면을 비준하고 본급 인민대표회의 폐회기간에 개별적인 부시장의 직무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인민정부의 기타 구성인원과 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장, 부재판장 심판위원회의, 인민검찰원의 직무를 취소할 수 있는 결정권 을 갖고 있다.

④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조직도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 주임 : 1명, 부주임 : 6명, 비서장 1명 등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VII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여행을 마치고(총괄)

-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목단강시에 도착하자 소규모의 작은 활주로 주변으로 전투기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모습이 흡사 공군기지 같은 인상을 받았다.
-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에 시간이 표시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우리 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 검토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횡단보도가 없는 반면, 아무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무질서와 수시로 울려 퍼지는 경적소리,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이 우리문화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단횡단에 대비한 저속운행과 경적 등의 문화를 알고 보니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중국도 교통과 흡연문화를 빨리 개선하여 국격에 걸맞는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 줄 때가 된 것 같은 아쉬움을 남겼다.
- 이번 방문의 최대 이슈였던 청소년국제교류 협약은 양 도시 간에 그동안 교류해온 14년을 결산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약일수도 있겠지만 우리보다도 더 많은 교류를 희망하는 목단강시 정부 부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앞서,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어 선불리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 매년 방문과 초청을 번갈아가면서 추진해온 국제교류는 환영과 환송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을 수가 없지만 상호 접대차원에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중요한 행사가 되어버린 것에 수궁이 간다.

-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형태로 강북은 구시가지로, 강남은 대형 프로젝트로 도시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중국 내 유수의 기업들과 아파트가 들어 설 예정으로 강남개발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 목단강시 규모가 엄청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동북아의 요충지이며 교통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 우리 시 기업들이 동참하고 스포츠, 문화 등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물류수송비 등이 부담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북한을 경유할 경우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할 때, 북한과의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 조선족들이 대단위로 마을을 형성하여 함께 모여 사는 모습 속에서 자긍심이 있었으나 3세대 이후는 한국말이 단절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치면서 작금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영원히 다른 민족으로 전락할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 하루빨리 통일을 하고 조선족들이 우리나라를 왕래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 모든 일정을 마치고 청소년국제협약과 현안사항 토의 등을 거쳐 양 도시 간에 발전적인 교류사업을 모색하였으나 시간과 경비는 물론 도시 간의 특성 차이로 당장 접근이 어렵다는 것과 거대한 투자와 프로젝트로 전개되고 있는 강남개발구는 국책사업으로 우리 서울을 본 따서 진행 중이라는 것이 흥미로웠고, 조선 소학교, 발해유적지 및

흥룡사, 백두산 천지 등을 둘러보면서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미묘한 과거와 현실이 혼돈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한번, 남북통일의 중요성을 다짐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의 기능은 시정부, 법원, 검찰원 등의 사무를 감독하는 기능이 있고, 인구가 100만명이 초과하면 자체적으로 조례 제·개정이 가능하나 현재는 85만명으로 흑룡강성인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예산에 대한 발언권 및 감독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일과 체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한계에 차이가 있어 새로운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제한, 문화의 차이 등을 좁혀나갈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었다.
- 끝으로, 지난 5박 6일 동안 흑룡강성 목단강시 방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은 물론, 의사국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감사합니다 -